

학원비 나가는 소리... 강 건너 불구경하나



한용수의
돌직구

문이과 공통 수능 도입이 3년차에 이르면서 문과생들의 이과수학(미적분, 기하) 풀림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수학을 선택한 문과생이 5.2%였는데, 2년차인 2023학년도엔 7.1%로 상승했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험생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문과 학생 중 이과수학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실제 수능에서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소폭 감소하는 걸 감안해도 내년 대학 신입생을 뽑는 올해 수능에서 10명 중 1명꼴로 이과수학을 선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문과생들의 이과수학 침공은 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를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수능을 치르는데, 수학의 경우 총 30문항 중 22문항은 공통 문항이지만,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 통계(문과수능), 미적분 기하(이과수능)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응시집단의 성적 분포에 따라 표준점수를 보정하는데, 이과수능 선택자들의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점수 산출방식 상 똑같은 원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수학 선택이 늘수록 문과수능을 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는 더 낮아지면서 이과수학 선택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하위권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많아지면, 문과수능 전체 평균점수를 높이며 표준점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어느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입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예전엔 경쟁률을 보며 입시원서를 넣기 직전 눈치자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도 눈치를 보가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이과 통합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입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학원가의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학원 수요가 높아지면 학원비는 오르게 마련이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자녀 나이에 숫자 '0'을 붙이면 학원비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자녀 나이가 14살이면 학원비로 만 월 14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이는 기본요금 정도다. 특목고를 보내려는 학부모 지갑에선 남편 월급이 통째로 학원비로 빠져 나간다. 특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며 학력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학원 수업은 대부분 입시를 겨냥한 선행학습 위주다. 중학교 2학년이 수능 이과수학인 미적분을 배운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기록되는 내신을 대비해선 1~2주정도 대비하는 수준이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며 공교육 무력화가 심화된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관련한 대책이 나온바가 없다. 강 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은 이른바 변수 3종 세트가 추가된다. 또 한차례 교육과정도 바뀔 예정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바뀌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평가 방식 자체가 새로 도입된다. 공교육과 대입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시기에 사교육 유발을 막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이중 가격’ 꼼수에 배달앱 ‘손절’



기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부터 꾸준히 이용해진 배달앱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배달료 때문이다. 최소 얼마 이상 주문해야 배달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기본 3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가격이 더 붙으니 음식 값보다 배달료 부담에 주문을 그만 두게 되는 일이 최근들어 잦아졌다.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 가격’도 문제다. 심지어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으로 최대 4500원의 가격 차이가났다. 이 중 13개 음식점(65%)은 배달 앱 내 가격이 매장보다 더 높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기자도 햄버거를 주문하다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르게 적혀 있어 포장해온 경험이 있다.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른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중 가격의 주된 원인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다.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 내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중 가

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민간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경우 49.4%(384명)가 음식의 가격 및 배달비 등을 인상했다. 광고비가 인상된 경우에는 45.8%(346명)가 인상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음식 가격,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대다수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가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3월 28일 (음 2월 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도록. **48년생** 자식을 과보호 할수록 무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60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2년생** 미래의 사랑에 목숨 걸겠다는가. **8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 37년생**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는 더 빠르다는데. **49년생** 말려놓은 생선을 고양이가 가져가는 일진. **61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73년생**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니 가만히. **85년생** 아직이 만수무강이 아닐 것이다.
- 38년생** 원숭이띠와 말다툼하지 말도록. **50년생** 평평 쓰다기는 조만간 고립무원 신세. **62년생** 친구가 찾아와 저녁을 같이한다. **74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렸다. **86년생** 언제 저축 하나고 묻지 말고 오늘 적금을 들도록.
- 39년생** 평생약속을 잘 지켜서 오늘을 일구었다. **51년생** 해지기전에 집안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끔히. **63년생** 돈이 없으면 외로운 신세가 되는 것. **75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87년생**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하니 계획을 세우자.
- 40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백화점은 다음으로. **64년생** 학벌보다는 전문성으로 지켜나가자. **76년생**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88년생** 연금은 꼭 들어서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 41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 말고 지금 현실에 노력할 것. **53년생** 경제적 자립도를 위해 기술을 배우자. **65년생**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 **77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9년생**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축부터 시작.
- 42년생** 맞서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으니 한발양보를. **54년생** 고생 끝에 자식이 공사시험에 합격. **66년생** 과다한 지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78년생** 냉장고를 바꾸니 집안 분위기도 환해진다. **90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 43년생** 길게 보면서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불행을 면한다. **5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노력을 해라. **67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에 주의. **79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91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 44년생** 주다보면 자녀가 본인에게 부채가 될 수도 있음이다. **5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 **68년생**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자. **80년생**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92년생** 현재직장이 싫다면 다른데 가도 마친가지일 것.
- 45년생** 비가 오나 눈이오나 집은 지켜야만. **57년생** 영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인가 정확히 계산해보자. **69년생** 사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라. **81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이. **93년생** 지금부터 연금을 챙기고 꾸준한 저축을 시작.
- 46년생** 노후파산은 법적인용어이나 내게도 현실일수가. **58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70년생** 내가 참으면 끝날 말다툼이니 참는 것이. **82년생** 물가상승으로 시장바꾸니 가 가벼워진다. **94년생** 자주 이직을 하면 떡고물이 뭉쳐질 날이 있겠는가.
- 47년생** 자신의 소신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59년생** 투자는 허무하게 돈이 사라지니 주의를. **71년생** 자산형성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83년생** 40세가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는 불혹. **95년생** 효를 실천하면서도 저축은 늘려야할 것.

김상회의四季 귀상

임신중절妊娠中絶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이 일찍이 임신중절의 경험이 있는지 태어난 애기의 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설古說에 의하면 장남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귀는 곽廓이 나와 있지 않다. 곧 곽이 돌출한 귀의 남성은 장남이 아니고 이남 삼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되는 남자에게는 곽이 돌출한 사람이 많다. 만약 여성으로 미혼 시절에 몸을 움직여 그 결과를 임신중절이라는 형태로 처리해 버린 일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낳은 남아의 귀가 장남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결혼 전에 두번 중절했었다면 결혼하여 남이를 낳아도 모체에서 출생하는 그 애기는 장남이 아니라 삼남인 셈이다. 실제로 삼남으로서의 귀와 인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애기 귀의 곽은 도출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극단하게 돌출해있지 않더라도 곽이 팽팽히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중절한 남아였다고 가정하고 하는 말이지만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번이나 두번 인공유산 했을 때에도 이 현상은 이남 또는 삼남의 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상한 것은 남편과 다른 여성의 사이에 몰래 낳은 남아가 있고 분처에게서 초산의 애기가 출생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에게는 이남이므로 그 애기는 이남의 귀를 갖고 태어난다. 관상의 대가가되면 그 애기를 한번 보기만 하면 진정한 장남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한다. 귀상 耳相 人相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여아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장녀의 귀상은 없다. 또 중절애기가 여아뿐이었다면 몇 번 중절해도 최초의 남이는 장남의 귀를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귀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관상술이 있음을 안다면 예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쫓아주세요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2	4	
		1			3
7	8		6	1	
	4				3
9					4
	8			7	
		9	5		3
2			1		
	1		4		2

6					
3			9	7	2
9			2	7	
5	8				
	9				8
				4	5
			9	4	
3	8	5	1		
					9
					7

정답

2	9	6	7	8	1	5	3
8	6	9	1	9	3	2	7
1	7	3	2	1	9	6	9
9	1	2	7	6	2	3	8
7	9	8	5	1	2	1	6
6	3	8	1	9	7	1	9
2	9	1	9	3	7	8	6
3	2	6	9	8	1	9	2
9	8	7	2	2	6	9	3

1	2	9	2	3	8	9	7	6
7	6	2	9	2	1	9	8	3
8	3	9	7	6	2	2	1	
6	9	7	8	1	9	3	2	2
2	9	8	3	9	2	6	1	7
2	1	3	7	6	2	8	9	9
9	8	1	2	2	3	7	6	9
9	2	1	6	9	7	1	3	8
3	7	6	1	8	9	2	9	1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